

사마르칸트 국립 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에서 '국가 연구' 과목을 가르치며 얻은 고찰

이영만¹

초록:

이 글은 대한민국의 경제, 역사, 지리 및 문화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한국 문화와 관련된 관용 표현과 비유의 기원, 역사 및 기본적인 표현적 의미에 대한 간략한 소개도 포함됩니다. 필자는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단순히 언어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원과 역사적 발전, 그리고 나라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키워드: 한국, 경제, 역사, 지리, 문화, 관용 표현, 비유, 언어 학습, 한국 문화, 언어의 기원.

doi: <https://doi.org/10.2024/1qww3452>

1. 물수제비

어려서 물수제비를 많이 던졌다. 둥글고 알팍한 돌을 물 위로 튀기어 가도록 던졌을 때, 그 튀기는 자리마다 생기는 물결과 그것이 번져가는 모양이 신기해서였다. 오늘 나는 그런 마음 으로 작은 글을 쓴다. 사마르칸트 국립 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면서 던지는 물수제비 돌팔매질 바람의 마음이다.

이에 그러한 마음에서 혹 듣는 이들 중 불편함이 있다면 학교 발전을 위한 마음에서 아울러서 양해를 구한다. 한국 금언에 “좋은 약은 먹기에 쓰지만 몸에는 이롭고, 충심(忠心)에서 하는 말은 귀에는 거슬리겠지만 행동에 이롭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내가 쓰는 글의 내용 중에는 실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제넘게 내뱉는 말도 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즉, 나는 달포 전부터 한국어학과에서 ‘국가 연구’ 과목을 지도하고 있는데, 그 인연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단초(斷初)이며, 이에 잠깐 멈춰서서 지난 1개월여 기간 ‘국가(한국) 연구’ 과목을 수업하면서 경험하였던 좌충우돌 사연을 되돌아 살펴보고, 그간 느낀 바를 정리 하여 함께 둘러보면서, 앞을 내다보기 위해 아쉬운 몇 가지 생각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2. 연목구어

¹ 이영만 교수, 현재는 KOICA 단원 신분으로 사마르칸트 국립 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에 파견되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1) 교육학 박사로서 교육행정(정책)을 전공하였다.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근무(1981-2022)하면서, 동시에 겸임교수로서 경기대학교, 아주대학교, 건국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2015-2024)하였고, 은퇴(정년)한 후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인사혁신처 등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하였으며, 현재는 KOICA 단원 신분으로 사마르칸트 국립 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에 파견되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연목구어란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려 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필자가 이곳에서 ‘국가 연구’ 과목과 인연을 맺게 된 사연과도 서로 의미가 통하는 얘기인 듯하다. 즉, 8월 27일, KOICA 단원 OJT(On the Job Training) 연수 중 이번 학기에 필자가 지도할 과목을 협의하면서 시작된 이야기이다.

수업계(Sharofat) 선생님에게서 처음 ‘국가 연구’ 과목의 지도를 요구받았을 때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거부했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듯이 ‘국가 연구’는 다양한 학문 분야와 긴밀히 연결 되어 있는 주제를 다루는 과목으로, 그 교수자는 정치학, 경제학, 국제 관계, 역사 등 분야에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춰야 할 것임에도 나의 전공이나 경험은 그와 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정 얘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과의 선생님들 역시 전공이나 경험이 다르기는 마찬가지이고, 누군가가 지도한다면 그래도 한국인이니까 낫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는 수업계(Sharofat) 선생님에게 본래 내 의도와 다르게 한국인이 ‘한국(국가) 연구’ 과목 지도를 피하려는 인상을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그녀가 내미는 수업계획서를 받아와야 했다.

3. 북성(北星) 찾기

다행히 수업계획서(Syllabus)가 이미 작성되어 있어서 과목의 교육 목표나 교수요목 등을 새로 구성하는 어려움은 없었다.²⁾ 이마저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도 끔찍하다. 다만, 온통 우즈 벡어로 쓰여있는 수업계획서에 대한 분석은 필자의 실력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래서 일단 목표, 요목, 주제를 분석하고 그에 맞춰 무작정 내용을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여기서 또 부딪힌 난관이 참고할 문헌 또는 교재가 없는 것이었다.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참고 문헌은 러시아 책인 듯하여 필자에게는 있어도 없는 것과 같고, 가장 최근에 2013년 간행된 책이라 현실이 반영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는데, 경험한 사람은 동의할 것으로 믿지만 대한민국에서 1년은 그 시절 다른 나라에서 10년과 맞먹는 시간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의 수업계획서상 교수요목에 기재된 대로 수업 자료(원고, PPT)를 만들면서 얻은 첫 번째 생각은 교육 목표에 학생의 흥미와 필요 및 요구가 충분히 반영 또는 국가(지역·학교·교수자) 목표와 조화가 충분할까? 라는 의문이었다. 과목의 목표 설정에 있어서 목적(전공)하려는 자와 기능(선택)하려는 자의 입장이 상당한 거리를 두고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에 목표는 선행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학습자와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 하되, 명확하고, 측정과 그 실현이 가능하며, 학습자의 필요와 흥미에 맞춤으로써 교육 과정 전체와 연계성을 가지고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등의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는바, 수요자 중심의 목표 설정은 최근의 확고한 경향으로 안다.

이러한 기준에서 생각할 때, 앞서 의문을 제기한 ‘국가 연구’ 과목의 기존 수업계획서상 교육 목표 제시의 대상과 의도에 대한 필자의 판단은 공급자(국가·지역·학교·교수)의 필요와 요구가 반영된 전공(목적)하는 자 대상(중심)의 것이었다. 수업계획서에 진술된 교육 목표의 내용을 살펴보아서도 그렇고, 이후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제시된 요목과 주제에서 또한 그렇다.

4. 이정(里程) 재기

두 번째 의문은 교수요목의 적절성과 일관성에 관한 생각이었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배우며,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계획이며, 따라서 교수요목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즉, 교수요목은 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서 특정 과목이나 주제 에서 다뤄야 할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이기 때문이다.

부연하자면 교육과정은 전체적인 학습의 방향을 설정하는 틀(Frame)이고, 교수요목은 그 틀 안에서 개별 과목의 구체적인 학습 내용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특정한 교과목의 교육 내용을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주제와 항목들의 순서대로 배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는 층위별로 단위 교과목의 수업계획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른바 목표, 내용, 과정, 평가로서 목표는 단위 교과목을 통해 어떤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 해야만 하는지를 설정하고, 내용은 다뤄야 할 지식과 내용을 정리하며, 과정은 학습하는 과정 에서 겪게 될 다양한 학습 방법을 포함하여 제시하고, 평가는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 파악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에, 교수요목 분석을 통해서도 교육 목표 설정의 의도와 방향성 및 당부(當否) 여부를 판단 하여 볼 수 있을 터인바, 이는 교수요목이 무엇을 다루는지를 통해 교육 목표를 명확히 하여 줌으로써 주제들마다의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설정하여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명확 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교수요목은 교수자가 수업 시간에 다뤄야 할 학습 내용, 주제, 개념, 기술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므로 교육과정의 목표와 일관되게 설계돼야 할 것인바, 동일한 과목을 가르 치는 여러 교수자가 같은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이를 통해 수업의 일관성이 보장되고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다.

^{1 2)} 수업계획서(Syllabus) 상 과학 교사에 대한 정보(Fan o'qituvchisi to'g'risida ma'lumot) 에 의하면, 말리카(Malika Tolibjanovna) 선생님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기회를 빌려 제한된 열악한 여건 아래서 쉽게 범접하기 어려운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였던 열정과 노고에 감사한다. 적어도 이미 작성된 수업계획서를 통해서 과목의 목표가 무엇이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을 지도하여야 할지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지 않았었다면 너무나 난감하였으므로 필자는 아마 봉사(수업)를 포기하고 돌아갔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살필 때, 수업계획서에서 제시된 교수요목과 하위 주제(내용)에 대한 필자의 판단은 개념과 실제의 면에 있어서는 개념(강의형 교실 수업 중심) 쪽으로,³⁾ 역사·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루는 영역별·분야별 균형 면에서는 역사와 경제적인 측면에 더 많은 무게를 둬으로써 인문학(언어)보다는 사회과학 전공자 중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표1> 교수요목과 주제

1-modul, Koreyaning yangi tarixi (모듈 1-한국의 새로운 역사)	
1주차	∴ Ikkinchi jahon urushdan so'ngi voqealar(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사건) ∴ Koreyaning ikkiga ajratilishi(한국의 분단)
2주차	∴ Koreya XIX asr oxiri XX ars boshlarida(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한국) ∴ Koreya urushi(한국전쟁)
3주차	∴ KXDRning taskil topishi va Kim Ir Sen faoliyati (북한의 건국과 김일성의 활동) ∴ Pak Jon Xi va Koreya Respublikasining modemizastsiyasi (박정희와 대한민국의 근대화)
4주차	∴ Koreyada ilk davlatlaning shakllanishi(대한민국의 성립) ∴ Janubiy Koreya bilan yaponiya o'rtashdagi munosabatlarni tiklash (한일 관계의 회복)
2-modul, Koreyaning iqtisodiy va ijtimoiy geografiyasi (모듈 2-한국의 경제·사회·지리)	
5주차	∴ Janubiy Koreyaning jo'g'rofiy va tarixiy ma'lumotlan (한국의 지리 및 역사적 정보) ∴ Koreys aholisi(한국의 인구)
6주차	∴ Mamlakat iqtisodiyoti(나라의 경제) ∴ Mamlakat agrosanoat majmuasi(국가 농공단지)
7주차	∴ Sanoatning hududiy tashkil etilishi(산업의 영토 조직)
8주차	∴ Transport kompleksining hududiy tashkil etilishi(교통 단지의 영토 조직)
9주차	∴ Mamlakatning tashqi iqtisodiy faoliyati(국가의 대외 경제활동)
10주차	∴ Xalqaro turizm xalqaro hamkorlik shakllaridan biri sifatida (국제 협력의 형태 중 하나인 국제 관광)
11	∴ Koreyadagi ichki farqlar. Iqtisodiy rayonlarning xususiyatlari (한국 내부의 차이. 경제 지역의 특성)
12	∴ Koreyaning xalqaro aloqalari(한국의 국제 관계)
13	∴ KXDR tashqi siyosati(북한의 대외 정책)
3-modul, Koreya madaniyati(모듈 3-한국의 문화)	

3) 학생들에게 선행 지식 숙지를 위한 과제를 주고 있으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대한민국 역사를 다루면서 고조선과 고구려의 역사를 제시하는 것과 같이 조금 동떨어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

14	∴ Koreyada diniy e'tiqodning shakllari(한국의 종교적 신념의 형태)
15	∴ Koreya xalqining an'analari va urf-odatları(한국인의 전통과 풍습)

5. 선무당의 그릇된 용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의술에 서투른 사람이 치료해 준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뜻으로, 능력이 없어서 자기 구실을 못 하면서 함부로 하다가 큰일을 저지르게 되거나 혹은 괜히 설쳐대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쳐 놓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꼭 ‘국가(한국) 연구’ 과목을 지도하게 된 필자의 사정을 두고 하는 말인 듯하다.

국가 연구는 국가를 연구의 주제로 삼아서 그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측면을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학문적 활동이며, 특정한 국가의 역사와 제도, 정책, 사회 구조 등을 연구하거나, 여러 국가 사이의 비교를 통해 국가의 형성·발전·변화를 탐구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법학, 인류학 등 다양한 학문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이와 같은 국가 연구의 중요성과 이를 교육하려는 목표에 비추어 국가 연구를 지도하는 교수자에게는 전문성과 비판적 사고 능력에 더하여 연구 능력, 다문화적 이해, 그리고 소통 능력과 같은 역량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특히 복잡한 개념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즉, 교수자는 특정 국가나 이념에 대하여 편향된 관점을 가지지 않도록 객관성을 유지하고, 비판적 토론이 가능하도록 촉진·장려하며, 이론과 현실을 연결하여 현재 진행형 국제적 사건이나 정책을 다루려고 노력하는 한편, 정치적·역사적 갈등 등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정서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히 배려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절대적으로 아쉬운 것은 필자의 전문성 부족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첫째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 면의 부족이 그렇고, 둘째 언어적 소통 능력 면에서 더욱 그렇다. 이에 현지(사마르칸트 외국어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수하는 외국인으로서 언어 소통 능력은 지식이나 경험의 깊이에서 부족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을 것인데 너무 아쉬움이 크다.

6. 내다보기

이상과 같이 지난 달포 동안 한국어학과에서 ‘국가 연구’ 과목을 지도하면서 품었던 의문과 아쉬움, 그리고 그에 대한 필자 나름의 이론적·경험적 식견을 준거로 하는 원인 분석을 피력하였다. 그렇다면 대책이랄까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대책이 없다면 ‘뫼비우스 띠’처럼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숙제로 남겨두는 외에 방법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첫째, 교수자의 전문성 확보 방안으로서 해당 과목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교원의 재교육 방안을 제안한다. 앞에서 의문으로 제시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소 내지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은 우즈베크어에 능통한 해당 분야의 전공 교수자를 초빙하는

것이겠으나, 이는 대학 당국의 정책적 문제로서 쉽지 않을뿐더러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즉, KOICA 등 한국어교육 지원 기관의 협조를 얻어 원어민으로서 이미 우즈베크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한 사마르칸트 국립 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원(교수·교사 등) 중 담당자와 희망 자를 대상으로 ‘국가(한국) 연구’ 과목에 관한 연수(재교육)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해당 과목의 역량 있는 교원을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KOICA 등 한국어교육 지원 기관에도 매력적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한국어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우즈베키스탄 내의 많은 대학교에서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이고, 또 이를 해결하고자 학교마다 전문가의 지원을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을 가능(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박사급 전공자가 파견된들 무엇하나? 소통에 제한적인 것을!

둘째, 교육 공학적 접근의 활성화를 제안한다. 아날로그적 소통의 제한을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것이 디지털 기기 등을 이용한 정보의 공감각(共感覺)적 소통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서 사마르칸트 국립 외국어대학교 당국의 미온적이고 부실한 대응은 필자에게 아쉬움을 더하게 한다. 있는 기기를 두고도 쓸 수 없다니? 어디에 가서 이를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끼리니까 가능하고, 오늘의 이와 같은 학술대회가 꼭 필요한 이유일 것이다. 오늘의 학술 대회가 사마르칸트 국립 외국어대학교 내부의 학문공동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라고 들었 는데, 이러한 내부 공동체 간 소통의 공간이 아니라면 그 외에 다른 어디에서 이런 도대체가 어처구니가 없고 속이 상하게 거친 내부 고발성 말들을 뱉어낼 수 있을까?

디지털로 무장한 문명화된 현대 사회에서, 그것도 첨단 선진적인 대학교에서 전자칠판 등 교육 공학적 기기를 곁에 두고도 단지 연결할 선이 없어서 사용할 수 없었다면 누가 믿을까? 그것이 비치된 강의실을 두고도, 또 적극적으로 사용 의지를 밝히는 교수자에게 아무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덩그러니 칠판 하나 걸린 강의실로 바꾸어 배정되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도 계속 여러 번 해결 요구에도 같은 답을 들어야 했다면? 이미 학기가 시작되어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세(3) 차례의 강의실 변경을 경험하였다고 얘기한다면, 듣는 이 중 십 중의 팔구는 교수자에게 문제가 있어서라고 말할 것이다. 외국인 교수자라서 그렇게 대해도 된다고 생각한 걸까? 그렇다면 돕고자 왔는데 분하고, 무능력한 나에게 화가 난다. 돌아가고 싶다.

셋째,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활성화를 제안한다. 여기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교육의 맥락에서 교원들이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학습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즉, 교육은 전문 성을 기반으로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지속적·협력적 연구·실천 및 성찰·공유를 통하여, 공동체 구성원의 전문성 신장을 추구하는 학습 조직이다.

교원으로서 잘 존재함은 자기의 삶 속에서 교원으로 행복하며, 이 시대의 교육 방향을 스스로 만들고 참여하는 주체적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할 것임에도, 소용돌이치는 현실 세계의 맥락 위에서 이리저리 영향받으며 존재하는 교원 혼자만의 힘으로는 요원하고 벅찬 일이며, 이로써 교육적 난제들의 해결을 위해 혼자가 아닌 공동체에 의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국가(한국) 연구’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지난(至難)한 과목의 교육(수업) 계획을 비전문가인 교원이 혼자서 수립(기획·조직·구성·실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무모하고 무책임하며 부실 운영이 예견되는 것으로서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활성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장면이며, 이를 통해 교육(수업) 목표 설정과 요목 구성의 한계가 보완될 수 있다.

학술대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특정 학문 분야나 주제에 관심을 가진 학자, 연구자, 전문가들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는 학문적 진보와 협력의 장으로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모임을 통해 아이디어와 연구 방향을 발견하는 기회를 얻는 일이며, 돌아보고, 둘러보며, 내다보려는 자유이다. 이 귀한 자리에 줄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학술대회 당국에 감사한다.

참고 문헌:

- [1]. 국립국어원. (2021). *한국어 교재 개발 기초 연구*.
- [2]. 홍지현, 허방신, 심만영. (2023). *한국어 교재 연구 동향 분석 -2000년~2022년 학술지 및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34(1), 45-67.
- [3]. 박기영. (2005). *한국어 교재 변천사 연구*. *한국문화*, 20, 123-145.
- [4]. 서종학, 이미향. (2010). *국외 한국어 교재의 변천사 연구 -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연구*, 25, 89-110.
- [5]. 신현숙. (2006). *한국어 문화 교재 분석*. *언어와 문화*, 2(1), 77-98.
- [6]. 민현식. (2005). *한국어 교육현장에 있어서의 교재 선택과 활용*. *한국어 교육*, 16, 55-78.
- [7]. 오대환. (2009). *문화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재 문화 항목 분석 비교 연구: 특수목적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어 문화 교육*, 3(2), 99-120.
- [8]. 최호철. (2005).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문화 분석 연구*. *한국문화연구*, 10, 211-233.
- [9]. 이지영. (2004). *중국 한국어학과 쓰기 교육을 위한 교재 분석 연구*. *한국어 교육 연구*, 19, 145-167.
- [10]. 국립국어원. (2021).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인증 연구*.